

오피니언

월/요/광/장

이정애



지난 2월 17일 서울에서 '전문직 여성(BPW : Business & Professional Woman) 한국연맹'의 2011 국제 친선의 밤 행사가 있었다. '전문직 여성 한국연맹'은 UN '전문직여성 세계연맹(IFBPW)'의 산하 단체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고용 창출 등의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NGO단체이다. 이번 행사에서 눈길을 끈 것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멘토링(Mentoring)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한국에 대해 좋은 않은 감정을 가진 채 모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올해의 중요한 행사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다.

멘토링은 인생의 바다를 먼저 항해하면서 얻은 지혜를 가진 사람(멘토)이, 이제

삶의 여행을 준비하는 후배(멘티)들에게 바다를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며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서로에게 '의미있는 존재'가 되는 특별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멘토가 된다는 것

멘토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쌓기, 공감하기 그리고 희망 주기가 아닌가 한다.

첫째로, 멘토와 멘티의 인간관계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다. 멘토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행동할 때 존경받고 신뢰를 받는다. 또한 멘토가 멘티를 믿어주면

멘티는 동기화가 더 잘 되어 잠재 능력을 발휘하게 되며 두 사람의 신뢰관계는 더욱 돈독해 질 수 있다. 공감 또한 그러한 관계형성에 기본적인 요소이다. 나와 다른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공감을 이뤄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서로의 차이를 공감할 때 신뢰와 사람은 저절로 우러나오지 않을까한다.

마지막으로 희망은 멘토가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일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있다면, 낙담하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수

유학생과 1 : 1로 짝을 이뤘고, 이들에게 진심어린 관심을 가진 따뜻한 관계를 제공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멘토링을 통해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인생의 등불이 되는 진정한 조력자 역할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 이미지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외국인 유학생으로 낯선 한국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 혹은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 '멘토링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는 인종이나 문화에 상관 없는 한 가족, 한 인류임을 깨닫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한국 사회를 좋아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더 나아가 광주에서 공부했던 시간을 좋은 일로 기억하고, 그들이 꿈꾸는 목표에 조금이나마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전남대 의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김정호



최근 우리 사회에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란물과 폭력물 등 청소년에 대한 유해물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습니다.

이러한 유해환경 때문에 요즘 청소년들은 성(性)에 대한 윤리의식 부재와 성폭력에 대한 범죄의식조차 미약하다는 문제점을 언론을 통해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필자는 청소년들의 성범죄 문제가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을 절감했던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필자가 2010년 변호한 사건은 고등학교 3학년인 피고

두 번째 고민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무죄 주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소사실을 자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허가신청을 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들의 정상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은 비록 피해자 병이 피고인 갑과 1년 전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을까지 기재한 성관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부인

청소년들의 성범죄에 대한 단상

인 갑(甲)과 을(乙)이 만 16세 소녀인 피해자 병(丙)을 합동하여 성폭행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입니다.

피고인 갑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1년 전에 피해자 병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처음 만나는 날 바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연락 없이 지내던 중 사건 발생 1주일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 갑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매개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피고인 갑이 친구인 을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세 사람이 함께 성관계를 가졌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돼 구속기소됐습니다.

필자는 황급히 사무실을 찾아온 피고인들의 부모들에게 피고인들이 기소된 범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시킨 후 자세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야만 변론의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필자는 피고인들을 수차례 만난 후 두 가지 점에 관해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피고인들의 인성착하나 면담 태도, 학교에서의 생활모습 등이 지극히 평범한 학생으로 보였다는 점입니다.

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이례적으로 자진출석하여 피해자 입장에서 진술하였고, 공판기일 다음날 피고인들의 부모와 피해자 부모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으며, 피고인들은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의 선처 탄원, 피고인들의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필자는 이 사건을 변호하면서 특별한 범죄전력 없이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해왔고, 야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보낼 정도의 평범한 고등학생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특수강간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이르게 됐다는 점에서 비단 일부 청소년들의 비행으로만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의식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현실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자정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어른들의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비율로 청소년이 가해자 혹은 피해자로서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인터넷 공공연한 거래...대포차 위험한 질주 언제까지

자동차 명의자와 실소유주가 다른 대포차 멋진 대가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대포차는 각종 범죄와 탈세의 주범이다.

하지만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서는 아예 공공연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검색창에 대포차만 입력해도 사고 판다는 내용이 무수히 나올 정도다.

더욱이 충격적인 사실은 차량이 없어서 못 판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이유로 지금까지는 빛을 감지 못한 담보 차를 압류해 대포차로 되팔았지만 이제는 아예 고급 차를 임대해서 팔아넘기는 수법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대포차가 많이 팔리는 이유는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차량 가격이 정가의 40~50% 수준에 불과할 뿐더러 차량 명의자와 실소유주가 달라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차들은 음성적인 거래를 통한 불법적 차량이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지금도 전국의 도로에는 무수히 많은 대포차가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다. 경찰은 대포차의 은밀한 매매를 철저하게 단속해줄기 바란다. ▲전성길·광주시 서구 화정4동

기고

김성



지난 11일부터 일요일까지 일본의 동북부를 휩쓴 재앙을 지켜보노라 TV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2층짜리 창고와 대형 선박까지 종이배처럼 휩쓸고 간 엄청난 해일,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된 개센누마(氣仙沼)시, 방사능 누출, 파괴된 다리, 초토화된 도시, 그리고 계속되는 여진과 시민들의 공포, 상상을 초월한 현실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닥칠 재앙일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경악했다. 평소 간지워왔던 일본에 대한 미움도 잊은 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자연 앞에 얼마나 무기력하고, 최고의 과학자도

를 받아 한국의 민주화를 이룩해 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꿈꾸는 세계 여러 나라를 도와주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일본에 지진이 발생하자 광주시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선다이(仙臺)시에 인적·물적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 정부도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고 UN의 반기문 사무총장 역시 지원을 호소했으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으로 향하던 항공모함의 진로를 바꿔 일본으로 보내 지원하도록 했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적이고, 역사적으로는 2300년 전에 한

차량 정비인력부터 소방까지 모두 보내자

장 깨끗한 에너지 자원이라고 믿어왔던 원자력도 얼마나 위험한 문명의 이기(利器)인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런 분석과 반성은 앞으로의 일이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인명구조와 재난지역의 복구이다. 지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독도나 역사교과서 같은 정치문제라곤 관심없는 평범한 시민들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일본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고 해도 짧은 시간 내에 원상회복은 어려운 것이다. 설령 일본 국내의 장비와 인력으로 복구할 수 있다더라도 친척과 재산을 잃고 차가든 수송소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진 일본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곳에 그들을 돕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은 6·25 이후 국제사회에서 많은 원조를 받아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광주도 5·18 이후 세계 각국의 민주인권단체로부터 남모르게 지원

뿌리였다. 다만 일부 지도자들의 잘못된 정치이데올로기 때문에 이웃나라를 침탈하고 억지부리는 갈등을 낳았다. 이럴 때 우리가 따뜻한 손길로 일본 국민들을 돕는다면 지난날의 억지들도 눈 녹듯 사라질 수 있다.

이 기회에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그들을 도와야 한다. 119구조대와 의료진은 물론이고 자동차·컴퓨터·전기 정비인력에서부터 도시를 뒤덮고 있는 잔해를 치울 수 있는 공병(工兵)과 이재민을 구조할 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원을 동원해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두 나라에 긴급재난이 발생하면 서로 전력(電力)과 물자도 나누는 항구적인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번이야말로 G20회최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민주·인권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한국의 모습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역활성화연구소장〉

이혼 돕는 '중재서비스'...사회적 원조활동 절실

최근 언니가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됐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슬픔보다 주변 사회적 여건이 더 큰 스트레스와 긴장을 주는 걸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다.

언니는 이혼 합의, 아이들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및 이혼 후의 자녀를 위한 역할 분담 등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너무나 힘들어 했다. 우리 사회는 이혼과정에서 고통 받고 있는 부부들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갈

등과 분쟁해결을 도와주는 사회적 원조활동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법원, 시민단체 등에 이혼지원 전문기관이 별도로 설치돼 이혼과정에서 있는 부부들의 이혼중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이혼을 해야 한다면 국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혼중재서비스'를 도입해 서로의 원만한 이혼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권순도·광주시 남구 임촌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일본 대지진 참사 결과 '강 건너 불' 아니다

일본이 북동부 동쪽 해안을 덮친 규모 9.0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엄청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역사상 최대의 재난을 겪고 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방사능 공포'로 일본 열도가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폐허가 된 피해 지역에선 지구 최후의 날에나 볼법한 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의 대지진 참사를 진정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속한 복구를 기원한다. 아울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지진 대책을 자랑하는 나라이지만 이번 대지진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새삼 지진의 무서움에 전율을 느낀다.

일본의 이번 대지진은 우리에게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한반도는 현재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지진 발생

횟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등 밤낮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이 높아졌고, 재난당국 발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방사능 공포'로 일본 열도가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폐허가 된 피해 지역에선 지구 최후의 날에나 볼법한 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작년 9월 현재 지진을 견디는 설계가 의무화된 전국의 시설물 107만8천72곳 중 87만9천771곳(81.6%)에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는 중국 쓰촨성 대지진을 계기로 정부가 지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던 2008년 당시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전혀 진전이 없는 수준이다. 지진대책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나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따라서 미리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원전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자연재해 대비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일본 쓰나미 여파, 우리경제 대비책 세워야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다. 더욱이 일본에서 9.0의 강진과 쓰나미 여파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문제는 유가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이 150일 연속 올랐다. 휘발유는 150일 동안 8 당 당 무려 223.08원이나 뛰어 하루 평균 1.48원씩 상승한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8 당 2천 원 이상 거래되고 있다.

물가는 이미 한계 상황을 넘어섰고 있다. 소비재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6.6%가 올라 2008년 11월 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셈이다.

말가루, 설탕 등 생필품과 채소류, 육류, 생선 등 먹거리가 30~90% 이상 급상승해 서민가계에 직격탄이 되고 있

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책이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여기에 일본의 쓰나미 여파까지 겹쳐 우리 경제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일본에 수출보다 첨단 IT 부품 등 수입이 많은 상황에서 쓰나미의 영향이 우리의 대외 수출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물가 불안으로 국내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현실에서 수출마저 제동이 걸린다면 내외위환(內憂外患)이 아닐 수가 없다.

정부는 우선 물가의 큰 줄기인 유류부터 잡아야 한다. 리비아사태로 인해 연일 치솟고 있는 국제유가의 파고를 유류세 인하 등으로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쓰나미 사태에 대한 당국의 대응 방안도 확고해야 한다. 그에 따른 국제경제의 흐름을 예의주시해 수출전선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 미시적이고 임시방편적으로 대처하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無等鼓

'일본 침몰'이나 '대지진' 같은 재난영화에서나 등장할만한 장면들이 갑자기 TV 화면에 펼쳐졌다. 사상 최악의 강진이 이어 붙인 쓰나미로 해안지역은 초토화돼 됐다. 역류하는 바닷물에 휩쓸린 선박과 차량, 주택은 마치 장난감처럼 구겨져 물 위에 동동 떠다녔다. 공장에서 불길기 치솟고 건물들도 맥없이 주저앉았다. 정전과 통신 마비, 교통 두절 속에서도 시민들은

은 대목은 여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대지진은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과 그들이 만든 문명의 이기가 얼마나 보잘 것 없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반란교사(反亂敎師)였다. 한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8세기 창

대지진



건 이후 단 한 번도 수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졌던 불국사 석가탑은 경주 일대를 강타한 '지동(地動)으로 1024년과 1038년 두 차례나 붕괴돼 중수(重修)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시기 한반도에도 강도 높은 지진이 잦았음을 고려

사(高麗史) 등은 일러준다.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 부근 해저에서 발생한 대지진의 참상이다. 주말엔 가동이 중단됐던 원전마저 폭발했다. 내진설계에서 세계 최고를 자부해온 일본이지만, 강진과 쓰나미 피해에 이어 방사능 누출이라는 대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공식 집계된 사망자만 2000명을 훌쩍 넘어섰고 수만 명이 실종 상태다. 이번 지진으로 지구 자전축이 10cm가량 바뀌고, 일본 본토의 지반은 2.4m 이동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

지나해 한반도와 영해에선 42차례 지진이 발생했고 올해도 6차례나 관측됐다. 호들갑을 떠는 것도 문제지만 대재앙에서 교훈을 얻고 대비책을 찾는 것이 현인의 자세다.

/정후식 정경부장 who@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업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 A X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건부 2200-69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시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